**여론조사 : 대중의 지혜를 읽는 핵심 키워드**

**(Polling matters : why leaders must listen to the wisdom of the people)**

김남규

(미디어, 200821312)

이지훈

(미디어, 200921305)

배문규

(미디어, 201221090)

홍현진

(미디어, 201221066)

김형종

(미디어, 201221088)

[Newport, Frank](javascript:search.searchLink('AUTH','Newport,%20Frank%20');) . (2007). 여론조사 : 대중의 지혜를 읽는 핵심 키워드. (정기남 역). 서울 : 휴먼비즈니스.

**1장.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안다는 것**

인류에게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은 중요한 활동이 되어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다. 교수님의 강의에서 상황중심적 접근방법의 관점에서 보면 대화를 통해 하나의 Object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키며 실체를 알아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잡담이 비생산적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지만, 정-반-합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잡담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작용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공통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생존해나가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주위의 의견을 알고 싶어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적인 행동인 것이다.

사회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비교이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인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초의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자신의 의견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의견 그리고 감정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태도와 의견 그리고 감정과 비교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환경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방법과 능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인간 사회의 규모가 커진 것이다. 자신의 사회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인간은 이전의 마을과 소규모 단체 같은 작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기회도 많지 않다. 그래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과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기술로써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신하려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2장. 개인의 생각을 합하면 지식의 근원이 된다**

상호작용을 거쳐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는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여론조사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과 정보를 걸러서 간추린 지식을 모으고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다. 이는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명제를 근거로 한다. 전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정보를 모아서 추려낸 지식과 통찰력은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각각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유용하다. 단순히 지식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 이외에도 이러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해결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의사들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진단과 치료에 대해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의사들은 동료 의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다. 실증의학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 한 사람이 모든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완벽하게 갖출 수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의사 개개인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판단하는 데 다른 많은 전문가와 연구 결과 등 종합적인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 역시 여론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판사를 포함하여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 더 정의롭고 공정한 평결을 내릴 것이라고 가정한다. 배심원 각자의 배경과 지식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사건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과 다른 견해로 배심원들은 공정한 평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론도 발전한다.

최근 가장 흥미로운 발전은 인터넷에서 새로운 검색 엔진이 개인이 특정 사안을 검색하기 시작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가 무엇인가를 분석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 가지 주제에 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을 기록함으로써 동일한 주제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즈니스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선호도 마케팅’은 비슷한 관심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미래의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의 구매 결정을 추적한다. 선호도 마케팅 방식을 통해 같은 책을 구입한 다른 모둔 구매자들의 기록을 저장하여 이들이 구매한 또 다른 책들을 최초 구매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향후 추가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구매 기록은 서평 기사를 참조하거나 서점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는 구식 방법보다 구매 결정에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대중의 이러한 생각의 집합체는 막강한 위력을 갖는다. 전문가가 내리는 평가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신 정보와 구매자들의 평가가 훨씬 영향력이 있다. 사회적인 큰 틀 안에서 적용해본다면, 수많은 개인의 결정과 행동과 평가로 매우 적응력이 높은 시스템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양하고 많은 객체가 함께 보여 전체 집단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형태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사상가나 권위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개별 행동이 아래부터 결합되어 상향식 접근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회와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회의 많은 다른 실체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더 확률 높게 이루어진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에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관적인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상향식 접근 방법은 사회의 주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알아내는 데 가장 현실적인 수단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이를 통해 여론조사가 중요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고 본다.

**3장.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는 대중의 의견이다.**

민주주의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방법으로 정부의 의사결정에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반영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민주주의 체제는 그 특성상 스스로 유지해나가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놓칠 수도 있다. 여론조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과학적 도구이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적절하게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해보면, 전체 국민의 생각과 인식 그리고 태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선출된 의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지는데, 대의 민주주의 모형으로 ‘대리인’과 ‘수탁인’이라는 용어이다.

수탁인 모형은 민주주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대의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대중처럼 감정에 좌우되지 않으며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개인이 선거를 통해 위임을 받아 결정을 내리는 대의 민주주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리인 모형에서는 사회를 운영하는 최상의 방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관점은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전망과 식견을 보여준다는 것을 전제한다. 아울러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지킬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탁인 모형의 정신은 미국의 건국 시조들에게 반영되었고 현명하고 학식 있는 개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이는 대중의 의견과 정부의 결정 사이를 가로막는 두 가지 형태의 장벽을 설치한 셈인데 그 하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이고, 다른 하나는 공식적인 선거를 통해서만 대중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만든 시간적 제한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견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일부 장벽이 점차 낮아졌지만 대리인들이 얼마나 많은 대중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또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오늘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역 주민의 견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정기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사실은 미국인들은 종종 자신들의 대리인들과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대중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인식 때문에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일반적으로 지난 25년 동안 매우 낮았다. 이 같은 점은 사람들은 누가 의원으로 선출되든지 간에 대중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중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불만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사례는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일 것이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듯한 주지사에게 염증을 느꼈고, 투표를 통해 물러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불만과 권한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대중은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의원들이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표자가 필요하였다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표자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미국 역사상 주목할 만한 인물인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ee)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대중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인 단계는 본질적으로 대리인, 의원들의 역할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는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라고 하였다. 갤럽 박사는 자신과 브라이스의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개념을 사례로 들고 오늘날 대중의의견이란 예전과 같이 배타적인 소수의 교육받은 사람들의 견해가 아니고 여론조사란 정부의 수준을 더 높여주는 중요한 희망이라고 하였다.

일상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공통 의견을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입증된 방법이 여론조사라는 것이다. 대표자들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여론조사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4장. 사람들은 분류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론조사가 단 한명의 개인이나 정치인 그리고 이해 집단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 할 수 있다.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소수의견을 명확히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주로 여론조사 결과에 반대하는데 그 까닭은 자신들이 특정 범주로 분류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인간 각자는 유일하다. 그러나 과학은 모든 분류와 요약에 관한 것이다. 사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 현안이나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독특한 의견과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질문에 상응하는 사회의 한 범주에 소속된다. 사람들은 분류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특성과 유형을 조사하고 이를 일반적인 범주로 변환하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가 하는 일이다.

**5장. 다수의 의견에 따르면 소수가 억압받는가**

다수의 횡포는 완전히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다. 브라이스가 19세기 후반에 쓴 저서에 따르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다수가 권력을 이용해 소수를 억압하거나 횡포를 부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 등 다수가 소수를 억누르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는 노골적인 법적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권리장전, 삼권분립의 하나로 헌법을 해석하고, 소수를 억압하거나 기본적인 시민권을 빼앗는 법을 무효화하는 사법권이 바로 이러한 안전장치에 속한다.

대중의 공통적인 의견에 의존하면 창의성이나 과감한 지도력, 또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일부 비평가들은 국가 지도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너무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는데,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대중의 비위를 맞추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원, 하원의원 등의 지도자들은 대중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기를 원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대중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양심에 따른 의사결정이 선거구민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하는 편이 시간도 적게 든다. 그러나 정작 의원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도록 놓아두면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혁신적이고 과감하며 창의적이라고 스스로를 고취시킬 것이고, 일부 관련자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대중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대개 전통적이고 보수적이어서 비혁신적인 사고로 이어진다는 믿음도 깔려 있다. 다수의 공통적인 의견에 의지하면 여러 가지 잠재적인 해결책 중에서 중도에 가까운 해법이 도출되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기회를 잡으려고 모험을 감수하는 대중과 달리 지도자들은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모험 전가 현상’ 이라고 한다. 혼자 있을 때보다는 적은 수라도 여럿이 있을 때 위험한 결정을 내리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비판론자들의 주장은 여론조사 자료를 대중에게 알리면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분별없이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론조사 자료를 시민들에게 알리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특히 선거 기간에 불거져 나온다. 비판론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소위 대세몰이 효과를 형성하는 등 온갖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세몰이 효과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알게 된 사람들이 여론에 편승하고자 자신의 ‘진짜’의견을 바꿀 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날의 사안과 관련하여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안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대부분은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파악하게 된다. 여론조사는 단지 이러한 과정을 공고히 하고 더 체계화할 뿐이다. 선거에 관한 한, 시민들의 의견은 선거가 끝난 후에 밝혀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정보를 대중에게 감추려고 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단순히 당선자와 낙선자를 안다는 사실이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있다. 즉, 자신이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가 특정 선거에서 저조한 득표수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전통적인 대세몰이 효과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는 ‘제외되지 않기’ 위해 공화당을 택할 수도 있다.

**6장. 사람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침으로서 여론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일반 대중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만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단히 흥미로운 소재이다. 이 논쟁에서는 여론조사를 비판하기 위해 여론조사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비평가들은 미국인들이 명백한 사실이나 정치지도자, 지리, 역사적 사건에 대해 무지함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를 강조한다. 많은 미국인들은 지도상에서 보스니아나 이라크의 위치를 찾아내지 못하고, 국방부 장관이 누구인지 프랑스 대통령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미국 인구 중 흑인이나 히스패닉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논쟁에서 주장하듯이,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 않다면 오늘날 사회가 직면하는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떻게 대중의 의견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미국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거나 주목할 만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조사에서는 대중들은 일반적으로 뉴스를 경청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분명한 사실은 미국인들의 뉴스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너무나 무지하여 그들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지식인들을 별도로 분리해내려는 시도가 유익하지는 않다. 검증된 지식인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부한 증거들은 몇가지나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우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맡겼지만, 이들이 판단한 결과가 만족스러웠다고 합치되는 여론은 없었다.

그렇다면 민주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통찰력과 태도에 대해 무지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왜 선거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대중들이 사회에서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면, 왜 선출된 의원들은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때조차 자신들을 지지해준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인가?

현안에 관해 풍부한 지식이 있는 미국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탠퍼드 대학 교수 제임스 피시킨에 의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알게 하고, 현안과 뉴스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 후 시민들의 견해를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반영하기에는 불충분하겠지만, 사회의 보통 사람들도 해박한 엘리트들과 비슷하게 지식을 갖추게 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론조사라는 개념을 주장했는데, 그가 생각하는 공론조사는 세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기존의 여론조사 방법처럼 일반 시민들의 무작위 표본을 선정한다. 둘째 통상 주말을 이용하여 시민들을 집결 장소에 모이게 한 다음 그날의 현안에 대해 알려주고 교육한다. 참가자들도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토론하고 논쟁도 벌인다. 셋째 주최자는 지식을 갖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한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견 수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다시말해 피시킨은 보통 미국 시민들의 표본은 새로운 정보를 얻음으로써 지식을 갖춘 엘리트 집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에게 그날의 현안을 협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주말 설명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과, 며칠간의 교육으로 그들의 통찰력이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완숙한 대중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들 또한 있다. 이렇듯,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페이지와 샤피로는 “정책에 관한 여론은 결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의견이 바뀐다 해도 변화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 라고 요약하였다. 현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은 사회에 영향을 미칠 만큼 불안정하지 않고 변화가 느려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7장. 여론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이 60년 전 조지 갤럽 박사가 주창한 여론조사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현재의 여론조사 방법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방법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갤럽의 여론조사에 대한 많은 반대를 해명하기 위해 여론조사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반대하는 근거는 명확하다. 여론조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작은 표본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을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 책의 논점은 전체 모집단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정확한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모집단을 일반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론조사의 역할이고 여론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조사 대상인 모집단에서 특성이 다양한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론조사이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는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대상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론조사의 핵심인 무작위 표본 추출과정이 실제로 표본을 추출한 수백만 명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

그것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 증명할 수 있는데, 표본조사 결과를 실제 결과와 비교할 때 가장 잘 이해 할 수 있는 유명한 사례로는 예비선거 여론조사가 있다. 선거 전날 밤, 여론조사를 통해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무작위 표본에서 투표 성향을 예측할 수 있다. 선거 당일 밤에는 수백만 명의 투표 결과를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무작위 추출된 표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전체 대중의 행돌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지 한 번의 선거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예비선거 여론조사는 실제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국가여론조사 위원회는 여론조사 명부를 편찬하였고 이를 최근 몇 년간 선거 결과와 비교하였다. 실제로 표본 추출 방식이 정확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표본 추출의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 사이에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증거에도, 많은 회의론자들이 적은 수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의견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사실이다. 여론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표본은 크기가 아니라 추출 방법이 중요하다. 1930년대의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와 갤럽 여론조사 전문가가 무작위 추출법의 원리를 신중하게 적용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알 수 있다. 1936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최초로 표본 추출 면에서 과학적 접근 방식의 정확성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갤럽의 1936년 표본 추출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1948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잘못 예측하였고, 이 일은 한동안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하지만 갤럽의 기본적인 전제는 타당한 것 이었다. 수백만 명을 표본으로 하는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와는 대조적으로 갤럽은 단지 수천 명을 표본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하층 계급의 노동자, 농민들에게 표본으로 선택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갤럽은 루즈벨트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당연히 갤럽의 예측은 적중하였고, 과학적 표본 추출 방법을 바탕으로 한 갤럽과 기타 여론조사 기관들은 오늘날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조사와 여론조사 시작의 핵심이 되었다. 반번에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평판이 나빠졌고 몇 년 후에 폐간되었다.

1936년 치열했던 ‘여론조사 대결’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경험은 여론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표본의 크기가 아니라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것이다.

표본 추출의 핵심은 조사 대상인 모집단 전체의 모든 요소들이 표본으로 선정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표본을 선정하였을 때, 추출한 표본은 경험적인 오차 한계 내에서 모집단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8장. 여론조사의 대상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추출된 표본은 명부와 관련이 있다. 명부를 가지고 있다면 표본 추출은 한층 수월해진다. 조사자는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여 명부에서 적절한 인원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표본을 추출하면 된다. 무작위로 번호가 적힌 공을 뽑는 복권 추첨 방식과 비슷한 원리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사람의 숫자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같은 한, 원 명부상의 모든 사람들은 최종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같게 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표본 추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명부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낸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본 추출 틀’ 이라고 하는 명부는 여론조사 전문가에게는 전부나 다름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추출된 표본은 명부와 관련이 있다. 만일 조사자가 알고자 하는 모집단에 관한 적합한 명부가 있다면 표본 추출은 용이해 진다. 사람, 가구, 지역, 시기, 장소, 전화번호 등 조사하고자 하는 모집단과 관련된 요소의 목록이 없는 경우에, 표본은 대개 무작위가 아니라 임의적인 것이 되므로 통계적으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여론조사 응답률은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2002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보도된 많은 기사에서는 당선자를 예측하지 못한 상원 예비선거 여론조사를 두고, 응답률의 하락 때문에 예측이 빗나갔다고 비난하였다. 칼럼니스트이며 학자이자 작가인 여론조사 평론가 아리아나 허핑턴은 현대 여론조사에서 응답률 저조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거론하면서, 1990년대 말과 2000년 초의 여론조사는 가내수공업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대부분 사실을 잘못 알고 있고 부정확하다. 사실 2002년 예비선거 여론조사는 아주 정확했다. 학자들은 하락하고 있는 여론조사 응답률에 대한 논란을 여러 해 동안 자세히 검토하였지만, 현재까지 낮은 응답률이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와 실행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관심 있는 중요한 분야에 대해 토론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는 질적 측면에서 응답률 하락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비선거 여론조사는 지난 수년 동안 아주 성공적이었다. 여로조사 전문가들에게는 정보의 중요한 출처를 제공하며, 아울러 여론조사가 장래의 수백만 명의 행동과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9장 사람들에게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작위 표본 추출이란 관심 대상인 모집단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진행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무작위 표본 추출은 사람들의 태도나 의견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여론 조사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질문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여러 해 동안 이루어져 왔다. 여론조사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 질문을 하는 일이 어쩌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결국 조사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유도하는가 하는 좀 더 복잡한 문제로 발전하여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론조사의 질문이, 인간의 인식을 저장하는 서랍 속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측정되기를 기다리는 내재된 태도를 가볍게 두드려 깨우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정확한 분석은 아니다. 질문에 사용되는 단어와 응답자에게 제시되는 질문의 방식 그리고 때로는 예전의 질문에 대한 영향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

여론조사 방법론은 여론조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게 많이 밝혀지지 않았다. 질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여론조사는, 방법론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단지 몇 마디의 말이나 유도 질문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는 코드 워드로도 결과가 왜곡될 수 있고 시민들의 반응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여론조사 질문의 응답을 분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반드시 명확하지도 않다. 그러나 주제에 관한 질문의 표현 방식에 따라 반응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여론조사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10장 미디어와 여론 조사의 관계**

오늘날 많은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전달된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많지 않고 그러한 의지도 부족하다. 대부분의 대중매체는 여론조사의 오차한계 통계치, 일자, 표본 크기 등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수치는 중요하지만 여론조사의 복잡성과 가치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오늘날 많은 여론 조사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중들은 여론조사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고, 의미 있는 해석을 원한다. 하지만 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날 많은 보도매체는 예전보다 현안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다. 뉴스는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를 보도하기보다는 간단명료하고 신속하게 뉴스를 보도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는 종종 복잡하고 간단하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매체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도매체는 보도에 점차 관심을 가지지만 여론조사를 정확하고 의미 있게 보도하려는 경우에는 더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더 확실해지는 것은 여론조사 자료와 해석을 대중에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첫째, 다른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와는 달리 여론조사 전문가는 자료와 의사결정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오랜 시간을 할애할 만한 여유가 없다. 둘째, 언론인의 특별한 요구라는 문제가 있다. 뉴스 보도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극적이어야 하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종종 복잡하고 모호하여 설명하기 쉽지 않고 명확하지도 않다. 여론의 이러한 본질적인 복잡성을 저널리즘과 매체 보도의 요구와 비교해야 한다. 훌륭한 과학이 반드시 좋은 제목의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의 과학적 평가가 항상 명확하게 보도되는 것은 아니다.

신중하고 정확한 보도에 대한 필요성은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 언론인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과학적인 학문적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요약하는 경우에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보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명확하다. 일부는 대중 직접 전달 방식의 여론조사가 실제로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론 조사를 실시할 때 매체의 요구를 특별히 고려하기 때문이다.

대중 직접 전달 방식의 여론조사가 항상 과학적 방법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형태의 많은 여론조사도 과학적 토대와 자료 축적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 방식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적인 요건이나 기준은 없으며, 그로 인해 보도되는 내용의 질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여론조사의 주제 문제는 본질적으로 흥미로운데, 여론조사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한다. 호소력이 있는 주제가 인간 자신의 심층적인 논의와 분석보다 신문과 방송에서 더 잘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매체 관리자들은 규모가 큰 보도에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매체 관리자들은 확실히 여론조사의 가치를 믿고 있다. 여론조사는 분량은 작지만 보도매체의 주제가 되었다. 결국 여론이 더 심층적으로 보도되기를 바라는 대중의 요구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여론조사 보도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

**11장.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조사는 최상의 의사 소통 방법이다.**

대중의 견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도매체를 통해 여론조사가 잘 보도된다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선출된 지도자들이 여론조사를 외면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대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과 통찰력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지혜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론조사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서거 운동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정기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선거에 관한 것 이외에는 여론조사를 의뢰하지도, 실시하지도 않는다.

많은 정책 전문가들은 여론자사 결과가 겉으로 보기에 상반되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여론조사는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많은 경우에 응답자들은 숫자로 뒤범벅된 여론조사 결과가 당황스럽고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여론조사 하나를 읽고 난 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간단히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 여론조사도 있다는 것이다.

선거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를 알아내는 것보다는 다소 제한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다. 선거운동 전략으로 대중의 의견이 활용되는 것처럼, 노력을 기울이면 선거 이외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역구와 의사소통 하는 최상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다소 방어적으로 인정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방법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정책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정치인들이 주로 취하는 입장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한다면, 법률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개정하기 위한 주요 토대로서 여론을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안 될 이유가 없다. 여론은 그렇게 활용해야 하며, 이는 사람들도 원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수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일상적인 결정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많은 공직자와 전문가를 선발하고 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민주주의에서 누군가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 지라고 시민들이 진행하는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없다. 문제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자세하게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물어야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는 시민들이 통합된 경험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실제 투표라기 보다는 여론조사이다.

따라서 사회 발전을 위한 최상의 길은 여로조사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맥으로 여론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